

불붙은 대형마트 바로배송 경쟁 “온라인 매출 2배 이상 늘었어요”

‘2시간 배송’ 롯데마트 수완점 가보니 직원들 장바구니 들고 상품 골라 컨베이어 벨트 거쳐 상차장 이동 29대 차량 고객 문앞까지 배송 배송지역 확대·월드컵점도 도입 이마트도 광주·전남 5곳 ‘쓱배송’



7일 오전 롯데마트 수완점 직원이 고객 대신 장을 본 상품을 신선코너 ‘피킹 스테이션’에서 천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집하장으로 보내고 있다.

7일 오전 11시 롯데마트 광주수완점 신선식품 진열대.

손님 대신 장바구니를 든 직원(피커)의 손에 든 전자 단말기에서 ‘딩동’ 알람이 울렸다.

온라인 주문 10~15건이 채워지면 울리는 ‘피킹 지시’에는 광주 광산구 2.5km 반경 안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 목록이 빼곡히 나열됐다.

우유 2팩과 바나나 한 손, 탄산수 3병, 두부 4모, 카레, 즉석밥 등 대부분이 집밥 찬거리였다. 매장 곳곳에 배치된 ‘피커’ 12명은 상품 바코드를 단말기로 찍으며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상품을 담았다. 신선식품을 고를 경우 ‘당일 입고’ 제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날 피커가 고른 우유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은 당일 입고 상품이었다.

이들 상품은 신선식품 2곳, 가공식품 1곳에 마련된 ‘피킹 스테이션’ (수직 반송기)를 거쳐 75m 길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워크 스테이션’으로 30초 안에 운반된다. 7명의 ‘피커’ (포장 담당)가 주문 상품이 제대로 골라졌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수라인을 거쳐 장바구니는 185m 컨베이어 벨트로 또 다시 상차장으로 옮겨진다.

장바구니는 주문 뒤 2시간 안에 배송하는 ‘바로 배송’ 담당 1t 트럭 5대를 포함해 총 29대의 차량으로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된다. 수완점이 있는 장덕동의 경우 고객에게 상품이 도달되는 시간은 주문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새벽 배송’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마트들의 ‘총알 배송’ 경쟁이 불붙고 있다. 수도권 이외 광주에서 첫 ‘2시간 배송’을 펼치고 있는 롯데마트는 수완점에 이어 이달 중 월드컵점에도 확대 도입하

며, 이마트는 내년 초까지 봉선점을 하루 3000건 ‘3시간 배송’이 가능한 대형 PP센터로 세단장할 계획이다.

이날 롯데마트 수완점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일평균 온라인 배송 건수는 ‘바로 배송’ 100여 건을 포함해 760건에 달한다.

롯데마트 수완점은 연초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존 매장 물품을 주문한 지 2시간 안에 반경 2.5km 배송을 마치는 ‘바로 배송’을 도입했다. 바로 배송을 도입한 뒤 올해 롯데마트 수완점 온라인 매출은 전년보다 201% 급증했다.

올해 1월7일부터는 기존 상무점과 점점점 상권을 통합해 배송지역을 확대했으며, 사흘 전까지 주문하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하는 ‘예약 배송’ 도입 지역을 광산구, 서구, 북구로 넓혔다.

롯데마트 수완점이 시간당 처리하는 주문 건수는 25건, 하루 배송하는 상품 개수만 1만개에 달한다.

양호 롯데마트 수완점 모바일센터장은 “롯데마트 ‘바로 배송’은 상품 특성에 따라 드라이 아이스, 에어캡 포장을 하고 배송 완료 뒤에는 사진을 찍어 고객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일 뒷날

1000건에 달하는 주문 수요를 채우기 위해 최근에는 7명의 인력을 더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3시간 안에 주문 상품을 바로 배송하는 이른바 ‘쓱배송’을 봉선점, 광산점, 목포점, 여수점, 순천점 등 광주·전남 5곳에 도입했다.

광주 봉선점과 광산점의 경우 올해 1~3분기 쓱배송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60% 급증한 수치다.

주택단지가 밀집한 봉선점은 내년 초까지 개선공사를 거쳐 하루 3000건 이상 온라인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PP센터’ (물류센터)로 거듭난다.

이마트는 PP(피킹&패킹)센터를 현재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 전체 160개 매장 가운데 120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 김포 2곳과 용인 1곳에서 운영되는 대형 PP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70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목표 배송 건수는 하루 평균 36만건에 달한다.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장보기를 대행하는 ‘피커’ 인력을 광주·목포·전주·김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파격 인사...대표 3인방 모두 교체

신임대표에 경계현·한종희

김기남 부회장 회장 승진



김기남 정현호 한종희

삼성전자가 김기남 DS부문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7일 2022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회장 승진 1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3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총 9명 규모다.

김 신임 회장은 반도체 사업의 역대 최대 실적과 글로벌 1위 도약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회장으로 승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을 이끈다.

그의 후임인 DS 부문장으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을 지낸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이 임명됐다.

한종희 소비자가전(CE) 부문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은 부회장 승진과 함께 세트 부문장을 맡아 소비자가전(CE)과 IT·모바일(IM) 등 세트(CE/IM) 사업 전체를 이끌게 됐으며, 삼성전자 사업지원 테스크포스(T/F)장 정현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 최경식 부사장과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박용인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삼성전자 법무실 송무팀장 김수목 부사장은 세트부문 법무실장 사장에 올랐다.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사장은 세트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으로,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 강인엽 사장은 DS부문 미주총괄 사장으로 업무가 변경됐다.

삼성전자는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회장과 사장을 회장,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시키고 주요 사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부사장들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성과주의 인사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코로나 피해 채무자 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내년 6월까지 특례 적용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예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

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 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원금 상환 유예일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DB 확인후 집행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 업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크게 반발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가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부터 소상공인 신청을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 지자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자체별 혼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내취식 시

설을 갖춘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91.72 (+18.47)
↑ 코스닥	996.64 (+4.77)
↑ 금리 (국고채 3년)	1.872 (+0.007)
↓ 환율 (USD)	1179.50 (-3.50)

광주·전남 상장기업 시총 11월 한달 새 2조5000억원 증발

11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의 시가 총액이 2조5000억원 이상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11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역 상장기업 38곳의 시가총액은 전달보다 2조5075억원(-10.28%)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2조399억원(-9.48%), 코스닥은 5036억원(-15.50%)이 각각 줄었다. 코스피의 ‘금호에이치티’가 39.4%(1156억

원), 코스닥 ‘피피아이’가 5.9%(21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종목에서 줄었다.

코스피에서 DSR제강 하락률이 34.5%(-325억원)로 가장 컸다. 대우에이텍 30.6%(-615억원), 금호타이어 26.4%(-40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 시총은 8.2%(-1조1876억원) 줄며 지역 상장기업 감소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코스닥에서는 와토스코리아 25.7%(-139억원), 대한그린파워 24.4%(-501억원), 서암기계

공업 23.1%(-174억원)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지난 한 달 동안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거래량은 전달보다 9.5%, 거래대금은 28.5% 증가했다.

김중은 광주사무소장은 “11월 초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는 국내 코로나 치료제 승인과 반도체 공급망 우려 완화 등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하순에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출현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